"'사랑의 반찬통'으로 사랑의 온기를 느끼시길"

전주 풍남로타리클럽, 효자3동 저소득층 어르신에 100개 선물

전주 풍남로타리클럽은 23일 효자3동을 찾아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사랑의 반찬통' 100개를 전달했다.

전주 풍남로타리클럽은 회원 247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클럽으로, 매년 3억원 이상을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풍남로타리클럽은 전주 예수병원 극빈 암환자 수술비 지원사업, 난치성 어린이 수술비, 장애우 지원사업, 모범 중고생 장학사업, 국외 교류 지원사업 등 활발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종용 풍남로타리클럽 회장은 "사랑의 반찬통 전달을 계기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무병장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백 동장은 "앞으로도 관내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자 발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자3동은 동신교회(목사 신정호)의 협조로 매달 저소득 어르신 반찬지원 사업을 추진, 김형완 주민자치위원장이 전주 풍남로타리 클럽과의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김영재 기자

전세일 고창 석정웰파크병원장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고문 위촉

2010년부터 6년째 열리고 있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2016년 9월 29일에서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된다.

2016년의 주제는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40개국 과 200여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서양의학, 한의학,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을 통합한 One-Stop 서비스를 체험의 기회로 제공하여, 환자중심의 통합의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위원회에서는 세계적인 통합의학의 권위자인 석정웰파크병원 전세일 병원장(사진)을 통합의학 고문으로 위촉하였다.

전세일 병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등을 역임한 세계적 석학으로 현재 고창 석정웰파크병원 병원장으로 재활의학과에서 재직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금지면 하주원씨, 고소득 프리지어 재배로 부농 꿈 이룬다

남원시 금지면 너른 들녘에는 그윽한 춘향의 향기 머금은 프리지어가 재배되어 소비자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다.

올해로 귀농 2년차인 하주원씨는 농가 고소득 작물로 '천진난만'이란 꽃말을 가진 프리지어를 선정하고, 지난해 9월 시설하우스 3동(0.2ha)에 구근 6만구를 심어, 올 2월 말 첫 수확을 시작하였다.

수확한 꽃은 전국 화훼공판장(양재동, 광주 등)으로 납품하여 전국 1등 최고 상품으로 그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최고가로 낙찰되었으며, 국회 및 각종 수요처에서 주문이 잇따르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프리지어는 4월 초까지 출하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주문 요청으로 시설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재배기술 향상을 통하여 부농의 꿈을 실현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전북대와 공동치안 업무협약 체결

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전북대학교와 4대 사회악 척결 등 경·학 공동치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성구 덕진서장과 이남호 전북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경찰과 학교 당국이 힘을 합쳐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협약식에 이어 이남호 전북대 총장이 덕진서 경찰관 200여명을 대상으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안진수 기자

인 사

전주시

▲승진·내정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이 휴직계를 낸 관계로 후임 생태도시국장에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사진)을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함.

부 음

▲전북현대모터스FC 홈경기 운영팀 손지훈 과장 부친상 = 빈 소 : 전주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지실, 발 인 : 25일(금) 오전 9시, 상 주 : 손 정훈 손 대 훈, 손 지 훈, 연 락 처 :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063-250-1439)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010-961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62-6157
효자지사 010-8645-5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시 우아1동 사랑의울타리봉사단, 사랑의집 중식봉사

우아1동 사랑의울타리봉사단 회원 10여명은 23일 호성동 소재 전주사랑의집(노숙인 생활시설)을 방문 중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울타리봉사단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전주사랑의 집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을 위해 환경정비와 중식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소외계층 세대에 밑반찬 배달 등 끊임 없는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아1동 정경순 동장은 "관내 소외계층들을 위해 항상 봉사활동에 고생하시는 사랑의 울타리 회원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해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임실군선관위, 다문화가족 대상 선거체험 · 교육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정보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2일(화) 선거체험 및 민주시민교육을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및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는 방법과 우리나라 선거절차와 투표권이 갖는 의미 등 '다문화 가족의 선거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의와 사전투표 모의체험 순으로 운영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활동

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는 관내 주민들과 보건소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적상면 주민들은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줘서 고맙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한다고 전했다.

정상인 파출소장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 보호활동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평화파출소, 봄 행락철 빈집털이 예방 순찰 강화

평화파출소는 봄 행락철 빈집털이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봄 나들이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봄철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한 평화파출소는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빈집털이 예방 안내문과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주택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골목길과 아파트 주변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 시간대, 요일 등을 파악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을 집중하고 있다.

박두식 파출소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절도예방 및 순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 효자4동 마을가꾸기협의회, 봄맞이 대청소 실시

효자4동 마을가꾸기협의회 회원 20여명은 23일 봄을 맞아 서부신시가지 중심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정비했다.

이날 마을가꾸기협의회 회원들은 도청에서 전주대 정문까지 효자로 주변 구석구석에 쌓인 생활쓰레기 등을 치웠다.

효자4동 마을가꾸기협의 유동진 회장은 "미화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중앙분리대 주변과 화단을 정비했다"며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효자4동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봉근 효자4동장은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해준 마을가꾸기협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노송동, 새봄맞이 꽃묘 1000본 식재

노송동은 23일 새봄맞이 노송공원 등 관내 곳곳에 팬지 등 봄꽃 1,000본을 식재했다.

이번 행사는 통장협의회 통장,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송공원, 주민센터 주변, 천사의 거리 가로 화분에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화단을 조성했다.

통장협의회 송영임 회장은 "공원 및 동네 곳곳에 꽃묘를 심을 수 있어 마음이 흐뭇하다"며 "조성된 화단을 보면서 주민들이 새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찾아가는 4대 사회악 근절 홍보활동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4대악 범죄 근절 및 전화사기, 빈집털이 도난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쳤다.

박남규 중앙지구대장을 비롯한 직원 등 5명은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전화금융사기 예방요령, 빈집털이 예방을 위하여 홍보전단지를 나누어드렸으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하여 범죄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주시는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박훈기 서장은 "4대 사회악범죄 근절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거활동에 집중하여 반드시 검거하는 등 현장중심의 치안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